

인생의 수난에 맞선 '영웅' 들의 이야기



전주디지털 독립영화관(전주영화제작소, 4층)은 인생의 수난에 맞서 과감한 시도를 감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3편을 선보인다. 이들 영화는 지옥의 레이

스를 정복한 **헤이운혁**의 도전을 그린 <푸르: 내 생애 최고의 49일>, 장기를 소재로 한 뜻밖의 영화 <장기왕: 가락시장 레블루션>, 거장의 날카로움과 배우들의 연기가 보이는 <사랑의 시대>로 오는 2월 2일 상영된다.

2016 전주국제영화제 제8회 전주프로젝트마켓 라이징 시네마 쇼케이스 배급지원상을 수상한 <푸르: 내 생애 최고의 49일>은 스물여섯 회귀암 청년 **헤이운혁**이 한국인 최초로 지옥의 레이싱라 불리는 '푸르 드 프랑스'를 완주한 과정을 담은 감동 실화다.

푸르 드 프랑스는 매년 7월 프랑스 전역과 인접 국가의 3,500km를 일주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 사이클 대회로 21개 구간을 3주 동안 달리는 자전거 대회이다.

헤이운혁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회귀암 말기 선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지로 극복해 내며 꿈과 희망을 노래한다.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아 시네마스케이프 초청작인 <장기왕: 가락시장 레블루션>은 가락시장에서 장기왕으로 대활약을 펼치던 한 남자가 정

를 위해 일생일대의 장기대결을 펼치게 된다는 내용의 영화다.

작품은 각본과 연출을 겸한 정다원 감독의 데뷔작으로 전주국제영화제 상영당시 패기 넘치는 청춘영화로 눈길을 끌었다. 사회에서 쫓겨 다녔던 평범한 청년이 장기 하나로 세상을 바꿀 한방을 날린다는 설정은 관객들로 하여금 묘한 쾌감을 선사할 예정이다. 오는 11일 오후 7시30분 영화 상영이후에는 감독과 배우가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된다.

관객 설문조사 결과 반영작으로 선정된 <사랑의 시대>는 더 헛트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덴마크의 거장 토마스 빈터베르그 감독의 신작으로 감독의 실제 경험을 영화화 했다.

영화는 덴마크의 한 고풍스러운 대저택에서 공동체 생활을 시작한 다섯 남자와 다섯 여자 사이의 유쾌하고도 위태로운 사랑의 시대를 그린 멜로드라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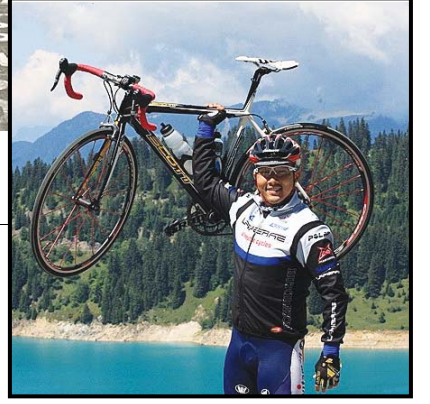
작품은 사회공동체의 폐부를 찌르는 감독의 감각과 예측할 수 없는 전개로 관객의 이목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영화 관람료는 일반 5,000원, 후원회원 4,000원이다.

*문의 063-231-3377. /정해은 기자



영화 '푸르: 내 생애 최고의 49일' (왼쪽)과 헤이운혁씨(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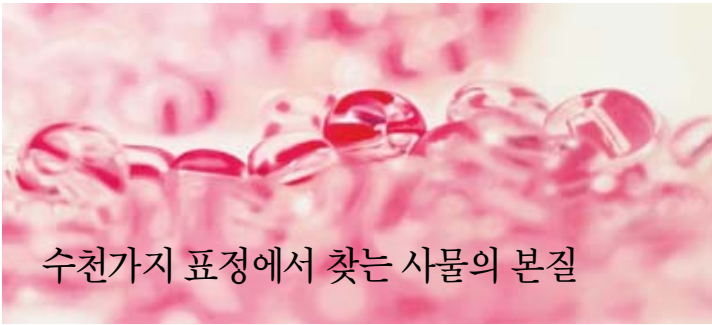


▶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푸르' 등 선보여

푸르 - 지옥의 레이싱라 완주한 회귀암 청년 이야기 담아

장기왕 - 정의를 위해 장기대결 벌인 한 남자의 일화

▶▶ 공연 & 전시 ◀◀



수천가지 표정에서 찾는 사물의 본질

도립미술관 김명숙 개인전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장석원) 서울관에서 오는 1일부터 6일까지 '김명숙 개인전'이 열린다.

김명숙 작가는 사물의 외형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 보다는 사물이 처해진 상황이나 현상에 주목한다.

'Light draws'의 연작인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사물과의 대화나 소통이 가능하다는 작품관을 펼쳐 보인다.

작가는 사물과의 상호소통을 위해선 그 대상과의 친숙함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우리의 시각이 대상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마치 이전에 본적이 없는 듯, 사물을 새삼스럽게 보기 위해선 그 대상으로부터 한발 물러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은 물방울이 아니다. 그것은 물속에 잠겨 있으며 빛에 의해 흠뻑 젖어있다. 다

시 우리를 향하는 빛은 매끄럽고 밝게 빛나며 작품의 표면에 내려앉는다. 그는 유채색의 중심을 가진 메두사, 녹여진 플라스틱 속에 갇혀진 물, 진주 혹은 어안을 통해 보이는 수족관의 장식 등을 투명하고 새로운 마티에르로 그려낸다. 마티에르는 만져질 듯 촉각적이며 자신의 고유한 중량과 존재감을 지니며 교란시키듯 매혹적이다.

작가는 "사물의 본질은 천편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수천가지의 표정 속에서 찾아내는 것"이라며 "이는 사물의 단순한 재현이나 모방이 아닌 사물의 성질을 섬세히 알아가는 과정"이라 말한다.

작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하였다. 프랑스·뉴욕·이탈리아·중국·일본과 서울·부산·전주 등 국내 외에서 다양한 기획 초대전과 아트페어를 펼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제24회 도리현대미술대전 특별상과 한국미술대전 우수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정해은 기자



'내 인생에 가장 빛나는 날'

3일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졸업식

성인여성 교육의 산실인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장 전은순)가 제17회 졸업식을 갖는다.

오는 2월 3일 10시 학교 교정에서 진행되는 이날 졸업식에는 졸업생 70명을 비롯해 초청인사·재학생·교직원·가족·동문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이날 졸업식에선 중학교 35명·고등학교 35명이 졸업장을 받게 되며, 학교장상(2명)·도지사 표창(2명)·교육감상(2명)·도민회의장상(2명)·동문회장상(2명)·개근상(6명) 등 96명이 수상의 기쁨을 함께 할 예정이다.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이번 제17회 졸업식까지 총1,264명(중 666, 고 598)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이번 제17회 졸업식까지 총1,264명(중 666, 고 598)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정해은 기자

기회를 다시 찾게 된 만학도들이다. 졸업생들은 41세의 최연소 학생(고3 한유정)부터 80세의 최고령자 학생(중3 노보덕)에 이르기까지 오직 배움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의욕·열정으로 향학을 불태운 이들이다.

영예의 학교장상을 수상하는 고3 이기순(59세) 씨는 3년 종합 학업성적 우수자로 올해 원광대학교 국어국문과 입학에 앞장서고 있다. 또 각박을 기증받아 시력을 얻은 중3 고점순(58세) 씨는 학업에 매진한 끝에 값진 졸업의 결실을 거두게 됐다.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이번 제17회 졸업식까지 총1,264명(중 666, 고 598)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이번 제17회 졸업식까지 총1,264명(중 666, 고 598)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정해은 기자

술테마박물관, 술빚기 전문 교육생 모집

완주군 구이면 경작산 아래 위치한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에서 2017년도 전통주, 와인, 천연발효식초 만드는 법을 직접 배우는 교육생을 이달 13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술에 대한 가치 인식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건전한 술 문화 정립을 위해 전통주의 기본인 누룩을 직접 만들어 밑술 및 덧술을 이용한 기양주를 빚어보는 시간으로 이뤄진다.

또한 제철과일을 활용한 와인 만들기와 다양한 농산물을 이용한 발효식초 만들기는 제조 원리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전통주와 천연발효식초 과정은 이달 16일부터 3월 30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며, 와인과정은 이달 14일부터 4월 11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이뤄진다.

특히 천연발효식초 과정은 전통주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대상은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신청서는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 홈페이지(www.sulmuseum.kr)에서 다운받거나 전화 063-290-3842~7번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재열 관장체육과장은 "지역의 농특산물 및 과수농가들이 다수 참여해 소득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띠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7년 2월 1일>



▷쥐띠

48년생: 금전운이 좋지 못하니 절약이 최선이다.
60년생: 요정을 피우다가는 구설을 면치 못하니 성실함으로 이겨내라.
72년생: 건강이 좋지 못한 운이다. 섭생에 주의하고 무리는 금물.
84년생: 재물에 길성이 비추는 운이다. 한만권의 결과가 있을 듯.



▷소띠

49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생기는 운.
61년생: 혼자서는 어려우나 뒷 사람의 덕을 구하면 작은 것은 이룰 수 있겠다.
73년생: 지나친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편안할 것이다.
85년생: 이성으로 인해 좋은 일이 생기는 때.



▷호랑이띠

50년생: 근신하면서 부지런히 정성을 다해 해쳐나가면 태양이 될 것이다.
6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나다.
74년생: 지나친 추진은 실패를 부르는 법, 길속에 흉이 숨어 있다.
86년생: 혼자서는 어려우나 함께하면 이룰 수 있는 운이다.



▷토끼띠

51년생: 문서에 길성이 들었으니 문서를 주고 받는 일에는 좋은 운이다.
63년생: 정신이 혼미하니 흑백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75년생: 이성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87년생: 구설수가 따르는 운이다. 말과 행동에 주의하라.



▷용띠

52년생: 능력 발휘가 잘 되는 운이다.
64년생: 금전적으로 유리한 운이 들어왔으니 활발하게 움직여라.
76년생: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바라던 운기를 내내라.
88년생: 처음에는 경쟁자였던 사람이 나중에는 좋은 관계로 발전될 듯.



▷뱀띠

53년생: 상세한 일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운.
65년생: 작은 재물은 쉽게 들어오나 큰 재물은 얻기 힘들니 때를 기다려라.
77년생: 무심코 행동한 일에 구설수와 시비수가 따르니 주의하라.
89년생: 손재수와 실물수가 생기는 운이다. 세심하게 관리하라.



▷말띠

54년생: 깊은 산속에 호랑이가 숨어있는 격이다.
66년생: 소리는 크나 형체가 없으니 요란하지만 하고 싶을 때가 없다.
78년생: 동기간과 불화가 예상되니 양보가 미덕이다.
90년생: 서로 통하지 않을 때, 사람의 결과 속을 경계하라.



▷양띠

55년생: 이성으로 인해 구설수가 발생한다.
67년생: 하늘과 땅이 만나지 못하는 것과 같이 화합하기 어려우니 때를 기다려라.
79년생: 급하게 움직이면 얻지 못하니 경거망동을 삼가라.
91년생: 가까운 사람에게 뜻밖의 해답을 구할 수 있다.



▷원숭이띠

56년생: 출행하면 유익하다. 길성이 따르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68년생: 두 마리의 용이 하나의 여의주를 가지고 다투는 격.
80년생: 등위는 어둡고 내가 향하는 방향은 밝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92년생: 무리한 활동으로 신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라.



▷닭띠

57년생: 구설수, 시비수가 따르는 운이다. 매사 진지하게 임하고 언행을 주의하라.
69년생: 자신도 모르게 주장이 강해지는 운이다.
81년생: 어려움이 있으면 뒷사람의 도움을 받아라. 생각보다 쉽게 풀린다.
93년생: 좋지 않은 사람과 인연이 생겨 놀랄 일이 있으니 조심하라.



▷개띠

46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지지부진해지니 무리한 추진은 삼가라.
58년생: 내부적으로 근심 걱정할 일이 생긴다.
70년생: 호흡을 맞춰 같이할 믿을 만한 사람은 구하기 어렵다.
82년생: 편보는 불리하다. 성실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최상의 길이다.



▷돼지띠

47년생: 의존하고 움직이면 하고자 하는 일이 변할 것이다.
59년생: 다른 사람의 감언이설을 조심하라. 시기심이 포함되어 있다.
71년생: 귀인의 혜택으로 성공한다.
83년생: 공동으로 움직이면 어려움이 없을 수 있는 운이다.